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소매 판매 예상 넘어... 9월에 전월 대비 0.4% 상승
- Bloomberg: 9월 미 산업생산 감소... 파업과 허리케인 영향
- CNBC: 미 소비자들 올해 홀리데이 시즌에 지출 늘린다... 카드 빚에도 불구하고
- Bloomberg: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허리케인으로 상승 후에 감소
- Bloomberg: '투자자들은 경제 전망을 원하는데 파월은 데이터만 의존'
- NYT: 엘런 재무장관, "트럼프 고관세 정책은 인플레이 유발" 경고

[미국 금융]

- FinanceYahoo: AI 주식 랠리, 투자자들에게 수익 기대감 시사

[미국 생활]

- CNBC: 미국의 연금제도 수준, 전 세계 48개국 중 29위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 경제, 1년 반 만에 성장세 가장 낮아
- WSJ: 중국, 자동차 관세 인상 고려 중
- Bloomberg: ECB 라가르드 총재 "유럽 경기 침체 아니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연방 정부, 각종 구독제 탈퇴 더 쉽도록 조치
- Bloomberg: 델타와 AA 항공, 워싱턴-레이건 항공편의 승자
- CNNBusiness: Bed Bath & Beyond 가 경쟁사 매장으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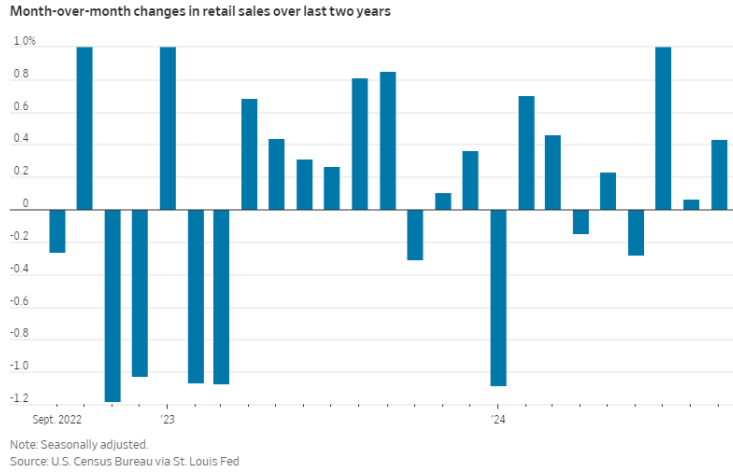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Retail Sales Rise 0.4%, Beating Expectations **미 소매 판매 예상 넘어... 9월에 전월 대비 0.4% 상승**

- 오늘 목요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미 소매 판매가 계절별 조정치로 전월에 비해 0.4% 상승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예상치 0.3%를 상회한 것이다.
- 작년 동월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이 같은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다. 바로 전 발표에도 9월 일자리 보고서가 강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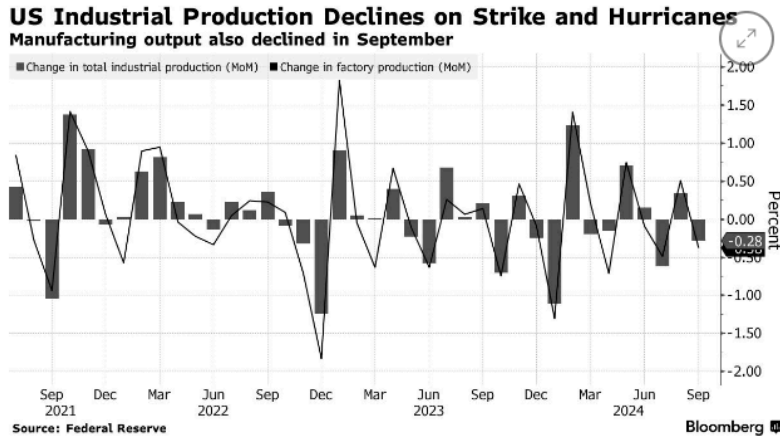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US Industrial Production Declines on Strike, Hurricane Effects

9월 미 산업생산 감소... 파업과 허리케인 영향

- 9월에 제조 활동 생산과 관련된 산업 생산이 보잉사의 파업과 연이은 허리케인으로 감소했다.
- 오늘 목요일 연준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 채굴, 유틸리티 생산이 8월에 수치 조정된 0.3% 하락에 이어 9월에 0.3% 낮아졌다.
- 제조생산의 경우 8월의 큰 수치의 하락 조정치에 이어 0.4% 하락했다. 채굴과 에너지 추출 업종도 허리케인인 Francine과 Helene으로 인해 0.6% 감소했다. 유틸리티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 연준은 항공사 기술자들의 파업으로 대략 0.3% 산업생산이 감소했으며, 허리케인 효과도 그만큼 된다고 추정했다. 항공 장비 생산은 9월에 8.3% 줄었다.



Bloomberg 기사

CNBC: Holiday shoppers plan to spend more while taking on debt this season

미 소비자들 올해 홀리데이 시즌에 지출 늘린다... 카드 빚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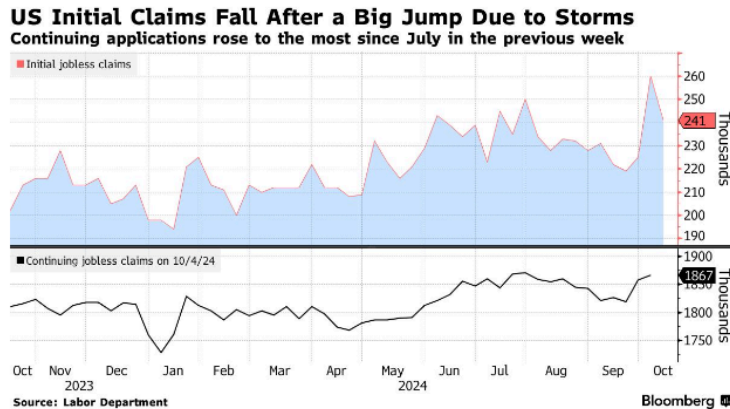
- 미전국소매연합(NRF)에 따르면 올해 홀리데이 시즌, 즉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에 소비 지출은 최고치로 약 9천7백95억 ~ 9천8백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크레딧 카드 빚은 1조1천4백억 달러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홀리데이 시즌에 소비자들은 평균 1,778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딜로이트 홀리데이 소매 보고서는 밝혔다. 작년에 비해 8% 증가한 수치다.
- 한편, 홀리데이 소비자들은 작년에 지출한 비용의 28%를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CNBC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Drop After Jump Due to Storms in Week Prior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허리케인으로 상승 후에 감소

-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허리케인 Helene 때문에 동남부 주들에서 상승한 후, 예상외로 감소했다.
- 관련 건수는 10월 12일에 끝나는 주에 1만9천건 감소한 24만1천건을 기록했다. 이는 블룸버그의 예상치 25만9천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 전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건수는 187만건으로 7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부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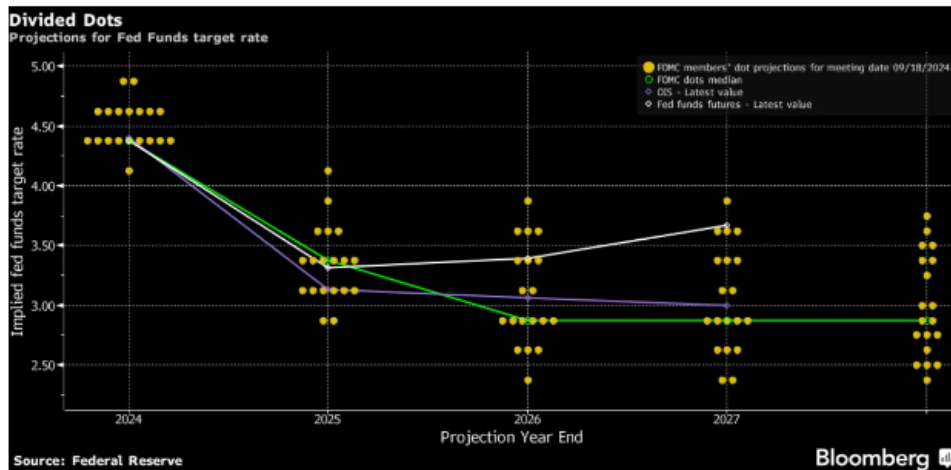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 Stuck on Six-Week Data Cycle When Investors Want a Forecast

‘투자자들은 경제 전망을 원하는데 파월은 데이터만 의존’

-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금리 결정은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근거해 개별 회의 때마다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해왔다.
- 그리고 연준이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발표할 때마다 파월 의장은 그 자료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점을 스냅샷으로 보여주는 데 불과하다고 간주해 왔다.
-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 때도 연준이 하는 일은 경제 상황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파월 의장이 다음 연도에 경제를 어떻게 기대하는지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래야 대중들이 연준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MetLife Investment Management의 전략가 Drew Matus는 “연준이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은 변동성을 키우는 셈이다. 경제 데이터 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 일을 강조하는 후진적인 성격이 많다. 데이터가 수정될 경우 경제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이전의 인식이 뒤집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정책 결정의 훌륭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트레이더들은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일관성 있고 미래 지향적인 선제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경제 전망을 둘러싼 리스크와 큰 문제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NYT: Yellen to Warn Sweeping Tariffs Would Ignite Inflation

엘런 재무장관, “트럼프 고관세 정책은 인플레이 유발” 경고

-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트럼프 후보의 전면적인 고관세 정책 공약의 리스크에 대해 오늘 목요일 경각심을 일으킬 예정이다.
- 그는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인플레이를 유발하고 비즈니스를 해칠 것이라고 발언할 예정이다. 물론 이날 옐런 장관은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 공화당 후보와 공화당 측의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발언할 예정이다.
- 그의 발언 요지는 “우방국과 적성 국가들 모두에게 고관세를 똑같이 부과하고, 우방국들 거래 상대로 보는 정책들은 잘못된 것”이 될 예정이다.

NYT 기사

[미국 금융]

FinanceYahoo: The AI stock surge signals investors will be patient for profit: Morning Brief

AI 주식 랠리, 투자자들에게 수익 기대감 시사

- 투자자들이 테크 기업들의 AI 투자에 대한 성과를 우려하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는 랠리를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는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을 넘보고 있는데, 8월의 하락에서부터 반전하고 있다.
- 특히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이 AI 주도의 강한 매출 전망에 힘입어 수요일과 목요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 이 같은 추세는 AI 프로세싱과 인프라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으며, 관련 자본지출에 대한 단기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상황을 반영한다.
- 한편 메가 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관련 자본투자에 2천1백50억 달러를 투입하고, 내년에는 2천5백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상하고 있다.



FinanceYahoo 기사

[미국 생활]**CNBC: Here's why the U.S. retirement system isn't among the world's best****미국의 연금제도 수준, 전 세계 48개국 중 29위**

- 미국의 연금제도가 등급 C+을 받아 조사 대상 국가 48개국 중 29위를 기록한 것으로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는 밝혔다. 이 조사는 은퇴 재원 중 소셜 시큐리티와 401(k) 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 미국의 경우 고용주가 연금이나 401(k)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등이 A 등급을 받았다. 영국, 우루과이, 멕시코, 포르투갈 등이 B 등급을 받았다.

CNBC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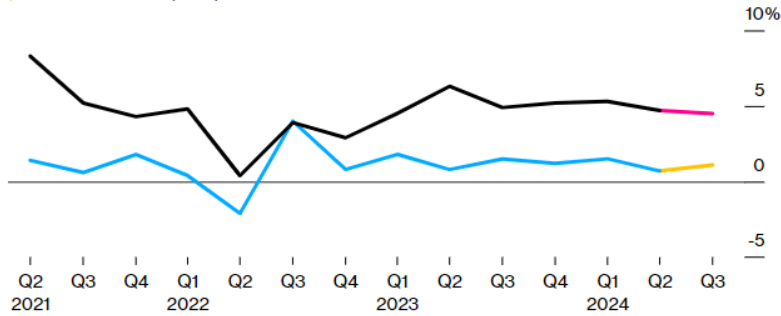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Bloomberg: China's Economy Likely Grew at Weakest Pace in Six Quarters****중국 경제, 1년 반 만에 성장세 가장 낮아**

- 이번 3분기 중국 경제는 연 4.5% 성장했다. 2023년 3월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다. 중국은 9월 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중국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 중국 국가통계국은 내일 금요일, 9월 및 3분기 경제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지표는 전월 대비 약세를 유지하거나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9월 경제지표는 암울하다.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가 예상외로 완화되고, 공장 출고가가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 중국 경제 성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소비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Robin Xing을 비롯한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리플레이션(디플레이션으로 지나치게 낮아진 물가를 정상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일)을 유도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중심 진작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ina's Economic Expansion Seen Slowing

Economists see GDP growth slowing to 4.5% in 3Q, slowest rate in six quarters

■ GDP growth (YoY)
 ■ Growth forecast (YoY)
 ■ GDP growth (QoQ)
 ■ Growth forecast (QoQ)



Source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Bloomberg

Bloomberg 기사

WSJ: China Considering Higher Tariffs on Car Imports
중국, 자동차 관세 인상 고려 중

- 이달 초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45%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중국도 대형 엔진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중국 승용차 협회(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 회장 Dongshu Cui는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승용차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EU는 2023년에 중국에 총 19만6천대의 엔진 크기가 2.5리터를 넘는 대형 엔진 자동차를 수출했었다.

WSJ 기사

Bloomberg: ECB's Lagarde Says Economy Isn't Headed for a Recession
ECB 라가르드 총재 “유럽 경기 침체 아니다”

- 오늘 ECB 금리 결정 관련 Christine Lagarde 총재 브리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상대로 ECB는 두 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탈인플레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 목표에 제때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 관계자들은 여전히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연착륙이 가능하고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Lagarde는 여러 차례 ECB가 데이터에 의존해 회의별로(meeting-by-meeting)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에 또 한 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시장은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다. 유로화는 0.5% 하락했다. 유로존 채권은 초기 손실을 만회했다. 트레이더들은 향후 4차례 ECB 회의에서 금리가 약 4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The federal government just made it much easier to cancel your gym membership

연방 정부, 각종 구독제 탈퇴 더 쉽도록 조치

-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요금제 탈퇴는 가입만큼 쉽지 않다. 수요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은 이를 바꾸기 위해 기업이 소비자가 쉽게 요금 구독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규정을 발표했다.
- 연방거래위원회 Lina Khan 위원장은 “기업들은 구독을 취소하기 위해 너무 많은 절차를 거치도록 만든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가입한 요금제는 클릭 한 번으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가입했다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결제 기술 회사 Bango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은 평균 약 4.5개 요금제를 구독하고, 연간 평균 924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Delta, United Among Winners of New Washington-Reagan Flights

델타와 AA 항공, 워싱턴-레이건 항공편의 승자

- 아메리칸 항공 그룹과 델타 항공이 새로운 워싱턴-레이건 장거리 노선을 확보한 승자가 되었다. 저가 항공사인 Spirit, JetBlue Airways, Frontier Group Holdings는 선정되지 못했다.
- 항공사와 의원들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정치권 브로커들이 자주 이용하는 레이건 내셔널 공항의 장거리 노선을 두고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여 왔다.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워싱턴 연방 정부 청사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아메리칸 항공은 San Antonio 직항 노선을, 델타 항공은 시애틀 직항 노선을 제공하게 된다. 알래스카 에어 그룹, 유나이티드 항공 홀딩스,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항공사들도 경쟁 공항에 새로운 왕복 노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Bed Bath & Beyond is returning to brick and mortar stores — at a rival**Bed Bath & Beyond 가 경쟁사 매장으로 돌아온다**

- 작년 폐업했던 Bed Bath & Beyond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경쟁사 매장에 입점할 예정이다. Bed Bath & Beyond 브랜드의 주방, 욕실, 침실 제품은 곧 Container Store의 102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 최근 몇 년 동안 재정난에 빠진 두 쇼핑 브랜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ontainer Store는 지난 5월, 3년간 수익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부진해 사업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시작했다.
- Beyond의 회장 Marcus Lemonis는 “Container Store는 인기 있는 Bed Bath & Beyond 제품을 추가해 매장 형식과 상품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는 고객에게 더 많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보고서]**다시 힘 받는 '트럼프 트레이드'... "비트코인 9만달러" 기대도
트럼프미디어 주가 9월 저점 대비 157% 올라...달러·은행주도 강세**

미국 대선을 3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자산시장에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달러화, '트럼프미디어' 주식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로 꼽히는 자산들의 가격이 그의 당선 확률과 동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대선후보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에 따른 인지력 문제를 드러낸 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암살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의 당선 확률이 올라간 바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24. 10. 17. 오후 1:24

Email from KOCHAM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